

# Japan Weekly Digest

2012. 1. 28. ~ 2012. 2. 3

☐ 금주의 이슈

- 일본의 국채잔고 2021년에 1000조 엔 초과

☐ 일본기업전략

- 일본정부 대규모 인프라 수출지원
- JFE와 IHI, 조선부문 통합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경산대신, 지역전력의 독점체제 개선 방침
- 기술혁신·창업·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미·일 대화

☐ 보고서 리뷰

- 『해외생산에 관한 논점과 사실』 일본은행, 1월28일



**한일경제협회**

**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**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◆ 금주의 이슈

### □ 일본의 국채잔고 2021년에 1,000조엔 초과

- 국채이자 지불액, 2021년도에 20조 엔으로 배증
  - 일본 재무성은 30일 2012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세출·세입의 전망치를 공표. 소비세율을 2015년 10월까지 10%로 인상하더라도 국채잔고는 2021년도 말 1,000조 엔을 초과할 때까지 계속 증가, 2021년도의 국채이자 지불액은 20조 엔으로 배증할 전망
  - 소비세를 증세해도 국채잔고가 확대되는 것은 전체 세수가 늘어나더라도 사회보장 확충 및 그때까지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이 세수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임. 이 때문에 신규 국채 발행액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과거에 발행한 국채 이자지불 때문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구조임
- 국채잔고 1,000조엔 초과
  - 시산결과에 의하면 국채잔고(부흥국채 제외)는 2012년도말 698조 엔에서 2021년도말에는 311조 엔이 증가한 1,007조에 이를 전망
  - 소비세율을 5%인상에 따른 세수는 2015년도에는 2012년도보다도 약 10.5조 증가, 기타 세외수입 등도 포함한 수입은 2015년도에 56조 엔으로 증가
  - 그러나 사회보장비나 지방교부세 등 정책적인 경비는 2012년도 68.4조 엔에서 2015년도에는 73.9조 엔까지 증가. 국채도 매년 40조엔 이상 신규발행으로 잔고가 쌓이기 때문에 이자지불액에 국채상환비 등을 더한 국채비는 2012년도 21.9조 엔에서 2015년도에는 27.5조 엔으로 증가
- 사회보장비가 관건
  - 재정건전화의 최대 초점은 사회보장비 억제임. 일체개혁 기본안과 관련하여 경제계 일각에서는 사회보장지출 억제 없이는 일체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
-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은 일본의 재정건전화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신용 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.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일본국내에서 국채를 소화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나리오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
## □ 일본 종합상사, 남미에서 곡물조달 확대

-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들이 남미에서 곡물조달을 확대. 미쓰비시상사는 브라질의 농산물유통기업에 20%를 출자, 브라질 최대 가공식품기업과 조달업무 분야에서 제휴
- 마루베니 역시 현지 유통기업 매수 등, 조달물량을 60% 확대. 인구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곡물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거점으로서 남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
- 일본의 5개 종합상사들이 남미로부터 조달하는 곡물량은 2015년 2,200만 톤으로 지금의 두 배가 될 전망. 일본 총수입량의 3/4에 해당하는 곡물을 확보하여 신흥국의 수요에 대응하고 일본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임

## □ 신에츠화학, 베트남에 희토류 가공 거점 신설

- 일본 신에츠화학(信越化学)은 하이브리드자동차(HV)에 사용하는 희토류의 가공 거점을 베트남에 건설, 폐자석 및 광석에서 희토류를 분리·정제하여 2013년 가동
  - 희토류 자석 분야에서 세계 제 2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동사는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나, 가공 거점을 늘려 조달리스크의 경감하여 자석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신에츠화학이 희토류의 가공거점을 해외에 설립하는 것은 최초. 베트남의 하이퐁 공업단지에 약 20억엔을 들여 건설, 8만평 규모로 연간 1,000톤 처리
  - HV 및 HDD등에서 회수한 폐자석이나 자석공장에서 발생한 파재를 들여와 네오ジム이나 지스프로슘을 분리·정제하여 자석원료로 재활용
- 희토류는 현재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0%를 장악하고 있는데다, 희토류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. 이 때문에 에너지절약형 에어컨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조달리스크가 커지고 있음
  - 베트남에서 최근 유망한 희토류 광산이 확인되고 있고, 동남아시아의 HDD공장 등에서 폐자석을 회수하기 쉬운 이점도 있음
- 신에츠화학은 발광 다이오드(LED)용 재료공장도 베트남에 건설할 계획. 약 30억엔을 투입, 2013년 3월 가동을 목표. 동남아시아에서 LED가공 거점을 늘려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위해 베트남을 주요 생산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

## ◆ 일본기업전략

### □ 일본정부 대규모 인프라 수출 지원

- 일본 정부가 신흥국·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총액 1조엔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발표. 그 대상에는 미얀마에서의 상하수도 정비, 스마트커뮤니티(환경도시) 사업들도 포함
- 인프라 수출확대를 통해 엔고로 인한 국내산업의 공동화 방지는 물론, 수주액의 10%정도를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 있는 사업소에 배분, 피해지역의 조기 부흥에도 도움이 되게 한다는 목적
- 인프라 수출 대상은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미쓰이물산, 히타치제작소 등이 사업화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, 이에 필요한 자금은 일본정부가 2011년 3차 추가예산에서 보조금을 교부키로 함
- 지원 대상사업 중 미얀마의 상하수도 설비 개선은 동양엔지니어링이 계획을 입안, 양곤의 정수장 신·증설, 송수펌프 증강 등 총액 300억 엔 정도의 사업을 계획

#### <일본의 민간수주 인프라 사업>

국가	사업내용	주요 기업
미얀마	· 상하수도, 하수 처리시설 정비	동양엔지니어링
	· 양곤의 화력발전소 보수	미쓰이물산
캄보디아	·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전력공급	이토추상사
	· 신교통시스템 도입	히타치제작소
인도네시아	· 고속도로의 ETC 설치	서일본고속도로
	· 자카르타 근교의 환경도시 정비	치요다화공건설
	·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정비	하치요엔지니어링
파나마	· 지하철 정비 등	일본공영, 미쓰비시상사
말레이시아	· 쓰레기 소각에 의한 전기 및 냉열 공급	닛기, 히타치조선
모로코	· 인광석의 수송 철도능력 증강	히타치조선, 도시바

### □ JFE와 IHI, 조선부문 통합

- JFE홀딩스의 계열인 유니버설 조선과 IHI의 자회사인 IHIMU가 금년 10월 합병하기로 결정. 2008년 교섭을 시작하여 4년만에 타결된 것으로 그동안 일본 조선업체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서 3위로 추락
- 양사의 통합효과는 개발 효율화와 선박의 다양화로 양사 설계부문의 노하우를 융합하여 에너지절약형 선박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임

## ◆ 경제산업성 동향

### □ 경산대신, 지역전력의 독점체제 개선방침 밝혀

- 경산대신은 2일 전력시스템 개혁위원회에 참석, 전력회사가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하는 지역독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과 발전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하기 쉬운 환경 정비,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구상 등을 밝힘
- 경산대신의 이 같은 발언은 공급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력유통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전력회사의 경쟁을 촉진시킬 의도임.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이 정지되었을 때, 서일본지역에서 전력을 유통받을 수 있었다면 수도권의 계획정전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임
- 또한,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, 현재는 동경전력 등 10개 전력이 공급지역별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개 전력회사로부터만 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
- 송배전망 등을 발전사업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없으면 신규진입이 촉진되지 않기 때문에 전력회사의 발전사업과 송배전사업을 분리하여 송배전망 운용에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

### □ 기술혁신·창업·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미·일 대화

- 일본 경산성과 미국 국무성이 미·일 벤처기업 간의 신기술의 상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「미·일기술혁신·기업가정신위원회」를 설립
- 동 위원회는 best practice, 정책, 양국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조사, 양국정부에 보고하는 기구로서 일본 측은 경산성 심의관과 일본 IBM 최고고문이 미국 측에서는 국무성 특별대표와 스탠포드대학 명예교수가 공동의장을 맡음
- 양국에 이익이 되는 기술혁신과 창업 촉진을 목표로 양국 정부는 창업촉진, 국제 네트워킹 촉진 및 지원정책 등이 민간기관과 정부가 양국의 경제적 기회를 높이기 위한 협력에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
- Cross-Pacific Innovation Network (CPIN)
  - 음성검색 등 기술을 사용한 차세대 비즈니스의 인큐베이션. 일본의 기술과 미국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활용한 사업화프로세스로 새로운 cross border model을 지향, 산업혁신기구, 관련 대학 및 여타 파트너들이 참여

## ◆ 보고서 리뷰

## 『해외생산에 관한 논점과 사실』

일본은행, 1월28일

## □ 해외직접투자의 두 가지 유형

-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코스트 절감이나 현지수요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직접투자와 생산요소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직접투자로 구분되며, 어느 경우에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됨
- 이 경우 환율은 현재 수준과 변동성 양면에서 해외생산에 영향을 미침. 자국 통화 가치의 상승은 해외생산을 촉진하는 한편, 중기적인 환율 변동 폭 확대는 기업으로 하여금 글로벌 생산조정을 위한 해외거점 설치 유인으로 작용하여 해외생산을 촉진하게 됨
- 국제경제이론에서 해외생산으로 발생하는 국내생산요소의 재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, 기업의 수익 개선이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져서 국내경제에 가져다주는 이점이 크다고 해석

## □ 해외생산이 공동화로 이어질 가능성

- 다음 두 가지 케이스는 해외생산이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음
  - 하나는 노동시장에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 고용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로 이 경우 국내경제는 해외생산의 이점을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고용이 감소되어 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  - 또 하나는 산업집적이 외부경제효과를 가지는 케이스로 이 경우 해외생산으로 인해 기업이 퇴출하게 되면, 거시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나 이노베이션의 정체가 발생할 수 있음
- 일본의 해외생산비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일본경제의 성장속도보다 빠른 가운데, 수평적 직접투자, 수직적 직접투자 모두 확대되었기 때문임
  - 전자의 대표 산업은 자동차산업, 후자의 대표 산업은 전기산업으로 양 산업 모두 쌍방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업의 해외수익 증가, 국내 생산성 상승, 공정간 분업에 의한 부품기업의 수출유발효과 등 플러스 효과를 보였음

-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생산 확대는 ▷해외생산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시장의 침체, ▷리먼 쇼크 이전의 국면과 비교하여 상대적 엔고, ▷신흥국을 포함한 해외기술수준의 캐치업(catch up), ▷국내 생산비용의 상승 우려 등을 배경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해외생산 확대국면과 비교되며,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감소나 기술정체와 같은 마이너스 영향이 나날 가능성이 있음

## □ 기본적으로는 해외생산의 플러스 효과가 큼

-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외생산 확대는 국제분업의 진전, 글로벌 수요의 확보 등 플러스 효과가 크고, 장기적으로는 해외생산 확대를 통하여 ▷해외자원을 활용하면서 글로벌수요의 확보, 기업 가치나 해외활동으로 소득 증대, ▷대내적으로는 고부가가치 부문에의 노동력 이전,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

## 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해외생산에 관한 논점과 사실』 일본은행, 1월28일

\*출처:[http://www.boj.or.jp/research/brp/ron\\_2012/ron120127a.htm](http://www.boj.or.jp/research/brp/ron_2012/ron120127a.htm)

- (2) 『동일본 대지진 이후 산업경쟁력 강화 :산업계의 대처와 정책대응』 경제산업연구소, 1월28일

\*출처:<http://www.rieti.go.jp/jp/events/11110701/summary.html>

- (3) 『자동차산업의 모노즈쿠리 간소화』 일본경제연구센터, 1월28일

\*출처:<http://www.jcer.or.jp/j-fcontents/report.aspx?id=MZQECLSPHAJ4HHIQ277IPM9SGHJF979T>

- (4) 『일본 건설업의 경영분석』 건설업정보관리센터, 2월2일

\*출처:<http://www.ciic.or.jp/course/bunseki.html>

- (5) 『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의 동향과 과제』 일본국회도서관, 2월3일

\*출처:<http://www.ndl.go.jp/jp/data/publication/issue/pdf/0735.pdf>